

도내 약수터 물 조심해서 마셔야

13곳 수질검사 결과 3곳은 부적합 판정

전북도내 '먹는물공동시설(이하 약수터)'의 수질이 모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와 약수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진태)은 도내 13개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시설은 음용에 적합하고 3개 시설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약수터는 전주 6개소(좁은목, 완산철봉, 정혜사, 어은골, 나들목, 서고사), 익산 2개소(관현, 냉정), 군산 2개소(장군산, 임피남산)와 완주 수왕사, 무주 신흥령 순화 대가 등이다. 이중 전주 서고사 약수터는 지난 13일 채수해 총대장군군과 분원

성대장군군이 검출 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음용금지 안내판 설치를 조치했다.

또한 익산의 관현·냉정 약수터도 지난 16일 채수해 총대장군군과 분원 성대장군군 등이 모두 검출돼 음용금지 안내판 설치는 물론 살균기점검과 재검사, 주변검사 등에 들어갔다.

이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약수를 음용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재검사와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수질의 약수

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검사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의 약수 음용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안전한 약수 음용을 위해서는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를 이용할 것"이라며 "강우 시에는 3~5일 지난 후 청결한 물통에 담아 냉장보관하고 1~2일 이내에 음용 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인산경찰 추적 절도범 교도소 복역 중 '황당'

전주인산경찰서는 29일 종업원에게 맡겨 놓은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시경 전주시 완산구 한 나이트 클럽에 동행한 A(39)씨가 웨이터에게 맡겨 놓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가방 안의 현금 20만원 등 총 22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와 잠시 동식한 뒤 "A씨가 잠시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웨이터를 속여 A씨 소유의 가방을 받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훔친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0만원만 챙긴 뒤 핸드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은 길거리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추적이 나갔으나, 이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진수 기자



해고연봉제 폐지하라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10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경 고향 선배인 이모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5)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김제시 이씨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A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A양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같은 일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부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내달부터 운영

연중무휴 상시 근무

전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를 신속 운영한다.

전주시는 현대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문화광장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전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됐으며, 현재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현대시설로의 신속

이 완료돼 고속버스 승·하차가 일부 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출구와 연결된 문화광장 안쪽에 설치됐으며, 관광광역안내원 2명이 연중무휴로 근무하게 된다.

관광광역안내원들은 고속버스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화된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관광명소와 지역축제, 문화공연을 비롯한 관광정보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이 전주와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관문인 만큼 전국 주요 관광지의 관광정보 역시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현재 한옥마을 내 3곳의 안내소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발을 내딛는 전주역과 터미널에 각각 1곳의 안내소를 운영하는 총 8곳의 관광안내소에서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부재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국내 총책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현금인출액에 보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1개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40여개 대포통장을 모집, 현금인출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송 방법을 모의, 전국 각지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책 속에 담아 택배달임 등을 통해 현금 인출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당일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8점, 대포폰 2대, 대포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공범 및 현금 인출액, 통장양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이같은 전화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대포 통장을 확대하고 있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이같은 전화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군산서 알몸 절도행각 경찰 수사

군산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미용실을 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알몸으로 미용실에 침입해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원 미상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5일 저녁 군산 내운동 미용실에 알몸으로 들어와 금고에 있던 160만원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진수 기자

한옥마을 금연구역 '허점'

주민 반발로 사유지 제외

전주시가 한옥마을 전 지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강력한 흡연 단속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유지는 제외돼 첫 출발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보건소는 지난 2013년 한옥마을 은행로와 태조로를 시작한다 이어 전주시 금연구역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옥마을을 사유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6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한옥마을 전 지역에서 흡연자를 단속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유지를 제외하면서 삼가 주차장 등에서 흡연은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동성당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사유지인 외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도 주차장 한편에서 두세 명이 담배를 피고 가는 모습을 보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흡연자인데 행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며 "손님들과 행인들이 담배꽂초만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면 억지로 나서서 흡연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식당 관계자는 "손님들 중에는 동행인에게 주문을 부탁하고 흡연구역이 어디냐고 묻는 손님들도 더러 있다"며 "흡연구역을 묻지 않고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물 내부에서 흡연은 막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까지 막을 수도 없으니, 꽂초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주차장에서 흡연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한옥마을 전 지역으로 흡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 사업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논의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까지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다는 주장이 있어서 사유지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의 사유지에 포함되는 주차장의 경우 한옥마을상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한옥마을은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기에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쳐 도로와 인접한 사유지 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건소의 해명에도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물은 대부분 목조건축물이라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도 다음날 방에 들어가 보면 담배냄새가 난다"며 "단순히 흡연금지를 안내하는 것에 그친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옥마을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허점이 드러난 만큼 당분간 한옥마을 식당 주차장이 흡연을 위해 삼삼오오 모여든 애연가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